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윤 영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윤 영

인 준 서

이윤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분화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지방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갈등해결전략 척도,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전략, 자아분화와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전략, 자아분화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지배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아분화는 절충 및 협력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 지배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으며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반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며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지배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를 촉진하고 자아분화가 잘되면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자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춤으로써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지배전략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갈등해결전략, 자아분화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6
 - 1)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6
 - 2)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유형 8
2. 갈등해결전략..... 10
 - 1) 갈등해결전략의 정의와 유형 10
 - 2)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 12
3. 자아분화 14
 - 1) 자아분화의 정의 14
 - 2) 자아분화의 구성개념 16
 - 3)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18
 - 4)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 19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4
 -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24
 - 2) 갈등해결전략 척도 25

3) 자아분화 척도	26
3. 분석방법	27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28
2.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31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47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53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표 2> 부모 자녀 의사소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4
<표 3> 갈등해결전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5
<표 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26
<표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30
<표 6> 자아분화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된 변인들의 경로.....	32
<표 7>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3
<표 8>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34
<표 9>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35
<표 10>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36
<표 11>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7
<표 12>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38
<표 13>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39
<표 14>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40
<표 15>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1
<표 16>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42
<표 17>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3
<표 18>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44
<표 19>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45
<표 20>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4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개인 내적인 갈등, 개인 간의 갈등,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등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해결해 가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과 사회성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하며, 갈등이 발생한 상황과 상대에 따라 해결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자녀 의사소통, 애착유형, 성격, 자기존중감 등이 있다. 그 중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로서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인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해 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하지원, 2004; 백윤미, 2005; 정남선, 2007; 장영수, 2008; 강미란, 2010; 김은주, 2013; 김지은, 2013; 여현심, 2014). 이 때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 혹은 타인의 감정을 더 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됨으로써(이현경, 2009) 정서지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조화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격이나 애정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성역할 또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와의 대화방식이 자녀들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분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owen, 1976). 자아분화란 Bowen(1976)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미분화된 가족 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충동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제석봉, 1989, 재인용). Bowen의 이론에 따르면,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신과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데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감정과 지각과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기 쉽다고 하였다. Bowen(1976)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으며, 상호작용 요소들 중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성격, 사회 경제적 상태 등이 있는데, 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수용 받고 있음을 느끼고 인식하게 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은 자녀의 자아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갈등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6; 최연우, 2010).

이를 종합해 보면, 개방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를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시기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생살이라는 자율적인 삶을 통해서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인격의 발달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확장된 대인관계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도 ‘청소년 상담 지원 현황’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담을 받은 대학생들의 주 호소 문제는 대인관계(2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업과 진로(18%)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대인 간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임을 고려할 때, 자아분화라는 과업을 성취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인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초점(김나리, 2002; 김나영, 2003; 허선이, 2005; 이경은, 박 경, 2006; 곽소영, 2007; 김경희, 2008; 장선희, 2009; 안은혜, 2010; 안혜림 외, 2011; 박희경, 2011; 장운정, 2012; 성지원, 2015)을 맞추고 있어서, 이를 일반화시켜 대학생의 모든 대인갈등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갈등상황을 이성관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활에서 폭넓게 교제하게 될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라는 환경적 변인이 대학생이 되면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와 맞물려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 갈등해결전략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 전략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회피’, ‘지배’, ‘양보’ 전략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5. 자아분화는 ‘절충 및 협력’ 전략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6. 자아분화는 ‘회피’, ‘지배’, ‘양보’ 전략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자아분화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가설 2-1. 부의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모의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1)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어(oral language)나 문어(written language)를 통한 언어적 요소는 물론 제스처나 자세, 얼굴표정, 눈 맞춤,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즉,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상호간에 느끼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이상수, 2001).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대상은 바로 가족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상호 간의 생각, 태도, 애정 등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장경림, 2013). 즉,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를 통해 그 언어에 내포된 의미와 특징적인 행동양식을 내면화하고 인지적, 정의적인 활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촉진시켜 나간다(김혜수, 2005, 재인용).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경우 자녀로 하여금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상호간의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금, 박옥임, 이경주, 1994). 또한, 개방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자

녀의 자기개념 형성과 자아존중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표현과 태도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일 경우 자녀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고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게 된다(이영숙, 김정옥, 2002).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이중적이거나 자녀의 가치를 무시하는 방식의 의사전달을 하게 될 때,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역기능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Satir, 1972, 재인용).

한편, 부모와의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편안하다고 느껴질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조율하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게 된다. 이로 인해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상대방의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반면(윤선모, 2010), 부모의 대화방식이 비난적이고 회유적인 역기능적 형태일 때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려는 성향을 갖게 되고(신자은, 2002), 이로 인해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거나, 갈등 발생 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등의 해결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만족스러울수록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임주희, 최연실, 2003; 김종화, 2005; 김여진, 2006), 개방적이고 원만한 분위기의 대화방식은 자녀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자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돕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조하나, 2006).

이 외에도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정서지능(이현경, 2009; 장경림, 2013; 송주연, 2014), 대인관계(송여옥, 2002; 이혜강, 2003; 도경숙, 2004), 학교적응(이상임, 2007; 박지연, 2010; 박선경, 2011)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발달과 인성, 정서, 사회적응 등 전인격적인 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미란(2010)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의, 여학생은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동성 부모의 의사소통이 같은 성별의 자녀의 의사소통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류봉렬(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중학생 자녀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문제집중적이고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를 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지에(201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보다 중학생 자녀의 공격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주희, 최연실(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은민(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성격이나 의사전달 방식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이러한 부모 각각의 특성과 성역할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모 자녀 의사소통의 유형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관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Gordon(1976)은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나-전달법(I-message)’과 ‘너-전달법(You-message)’으로 구분하였다. ‘나-전달법’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느낌과 입장을 알려주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의사소통유형이며, ‘너-전달법’은 명령, 경고, 설득 등으로 자녀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형태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두 번째로, Satir(1972)는 가족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주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의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회유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은 편하게 느끼지도 못하면서 상대를 편하게 대해주는 유형이다. 비난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이나 환경을 비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유형이다. 초이성형은 지나치게 합리적인 면과 원칙을 강조하며 감정을 중요시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 역시 잘 드러내지도 않는 유형이다. 산만형은 대화할 때 주제나 요점, 의미와 상관없이 말하며 주의집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Barn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 유형 연구를 살펴보면, 그들은 부부나 한 자녀가 경험한 가족 의사소통의 측면을 측정하여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과 역기능적 의사소

통(problematic communic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 모형(circumflex model)에 기초해서 설명하였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근거하여 '개방적' 또는 '문제적'으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반면, 문제적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대화하기를 주저하고 대화의 주제 선택에 있어서도 어려워하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와의 대화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루고자 하므로 Barn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 유형을 선택하였다.

2. 갈등해결전략

1) 갈등해결전략의 정의와 유형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 내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든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의 부정적인 해석과는 달리 갈등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Shantz & Hobart, 1989; Collins et al, 1997).

즉, 갈등을 통해서 문제 인식 능력이 개선되고,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상호간에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입장과 목적이 다르거나 상충되는 갈등상황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뜻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취할 때, 갈등 발생 이전보다 더 발전적인 관계로 도약할 수도 있다. 결국 갈등이 발생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Collins & Laursen, 1994),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한다.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인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Rahim(1983)은 개인이 갈등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와 상대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을 ‘협력(integrating)’, ‘회피(avoiding)’, ‘절충(compromising)’, ‘양보(obliging)’, ‘지배(dominating)’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협력은 문제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서로의 욕구나 목적을 존중하고 이를 건전한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다. 회피는 갈등상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서로가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갈등의 핵심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상호간에 이익이나 욕구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로 인해 유사한 갈등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절충은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여 해결책을 성취하는 것으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며, 이 때 중재자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절충 전략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성취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지은, 2013, 재인용). 양보는 타인의 관심이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관심이나 목적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회피 전략처럼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호간의 관계적인 면만을 중요시할 가능성이 커서 갈등상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상황이 종료되어 질 가능성이 있다. 지배는 한쪽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갈등해결전략이다.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방식이나 의견이 상대방보다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상대의 욕구나 관심을 간과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갈등해결전략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어떠한 방식만이 항상 좋은 해결전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협력과 절충은 상대적으로 갈등을 잘 해결하고 상호간에 발전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도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회피와 지배, 그리고 양보는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갈등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해결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할 경우 갈등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

가정 내에서 보이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정서지능에도 영향을 주어 자녀가 타인을 배려하고 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안정

적이고 편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강미란, 2010). 이것은 대인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해결하여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며(류승민, 2010), 이를 통해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아동의 경우 공감능력이 발달되고 친구관계에서 갈등 발생 시 서로 배려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유정, 2008; 조경은, 2008; 류승민, 20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경우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하지원, 2004; 백윤미, 2005; 정남선, 2007; 장영수, 2008; 강미란, 2010; 김은주, 2013; 김지은, 2013; 여현심, 2014).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호응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무시하는 대화를 할수록 자녀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회피(여현심, 2014; 성지원, 2015)와 지배, 양보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원, 2004; 백윤미, 2005; 정남선, 2007; 장영수, 2008).

이러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영수(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보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나, 어머니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 전략에,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지배 전략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아버지의 이성적인 특성은 자녀가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협력

및 절충 전략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회피, 지배, 양보 전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 자아분화

1) 자아분화의 정의

Bowen(1978)은 가족체계이론을 제시하면서 미분화된 가족 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나가는 과정을 자아분화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와 완전한 공생관계(symbiosis) 혹은 정서적 융합(emotion fusion) 상태이며, 가족들과도 정서적으로 융합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보았다. 개인의 분화란 이 융합관계에서 하나의 개체로서 그 자신의 가치, 신념, 생활원리 및 객관적, 지적, 독립적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성취함을 뜻한다(제석봉, 1989)

Bowen(1982)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삶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주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제석봉, 1989). 반면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주관적이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삶을 산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심한 스트레스에 봉착했을 때 이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내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본능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므로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제석봉, 1989).

선행연구들(제석봉, 1989; 조은경, 2001; 장윤정, 2012)에 의하면 자아분화는 개인의 내면 및 타인과의 관계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인지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인 정신 내적 측면과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정신 내적 측면에서 자아분화는 정서적 성숙을 의미하며,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으로부터 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 때, 자아분화는 자아강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내적인 정서적 압력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지체계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분화의 대인 관계적 측면은 정체성을 잃지 않는 즉, 자율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체적 자아가 아닌 거짓자아가 발달하므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서 타인의 견해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

Bowen(1976)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과 증상들의 원인은 자아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높은 불안과 우울로 나타나거나, 신체적 질병, 정서적 역기능, 충동적 행위, 위축, 비행 행동 등으로 외현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Greene, 외 1986; Hoffman, Weiss, 1986; 제석봉, 1989; 이혜숙, 1992; 권미영, 1993; 김은주, 2011).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아분화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성숙한 발달을 돕기 위해 자아분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아분화의 구성개념

Bowen은 부모의 낮은 자아분화가 자녀의 자아분화에 손상을 끼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아의 분화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아분화를 포함하여 삼각화, 핵가족 정서체계, 가족투사과정, 다세대 전달과정, 자녀 출생순서, 정서적 단절, 사회적 퇴행 등과 같은 8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제석봉(1989)이 상호연동적이고 중복적인 개념들을 제외하고 총 5가지로 재구성하였다.

가)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한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그의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와 상관이 있다. 정서적 체계란 회로애락의 일반적인 감정과 생물학적 본능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 체계가 분화되어 적절하게 기능하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유지해 나간다.

나) 자아의 통합

Bowen은 자아가 주체적 자아와 거짓 자아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주체적 자아가 발달하는 것을 자아의 분화라고 하였다. 주체적 자아란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확신 및 생활원리로 구성된 자아로, 주위의 정서적인 세력 또는 압력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 독립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는 자아를 가리킨다. 반면에 거짓 자아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획득된 이질적인 신념 및 원리로 구성되어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하는 자아로 위장된 자아를 가리킨다. 자아가 잘 분화된 사람은 주체적 자아가 발달되어 자주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쉽게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압력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스스로 잘 견지하게 된다.

다) 가족투사

자아가 잘 분화되지 않은 부모가 자신들의 미성숙함과 미분화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족투사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의 경우, 부부 간 갈등이 심하거나, 한쪽 배우자에게 역기능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문제를 특정 자녀에게 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불안과 근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투사 할 경우 개인의 자아분화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라) 정서적 단절

누구나 부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미분화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할수록 자아가 분화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일수록 부모나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외박이나 가출 욕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고립과 부정, 심지어 충동적인 결혼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정서적 단절을 드러낸다.

마) 가족퇴행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가정은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이 낮아 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로부터 미분화되고 동질화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퇴행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쉽다. 이러한 가정의 퇴행적 상호작용유형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자아분화에 영향

을 미쳐 미분화수준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퇴행에까지 이르게 한다.

3)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

자아의 분화정도는 가족 상호작용의 결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기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부모의 태도, 성격, 편부모, 양부모, 사회경제적 상태, 가족 규모 등이 있다. 그런데 가족의 상호작용과 기능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자녀의 자아분화정도가 부모 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세대 간의 차이를 좁혀주고 오해에서 오는 갈등을 감소시켜주고 원만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도록 도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1989).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 적응성과 응집성을 높여주고, 이러한 가족 상호작용의 결과는 자녀의 자아분화를 발달시킬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가정일수록 가족이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였으며, 부부갈등을 자녀들에게 투사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자녀들이 정서적 단절을 덜 경험하였고, 불안도 낮아 전반적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혜숙, 신영규, 1994; 유혜경, 2004; 최인재, 2004; 김갑숙, 전영숙, 2009; 김지원, 2011, 박선주, 2011).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족투사, 정서단절 그리고 가족퇴행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유혜경, 2004; 김지원, 2011).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지원(2011)의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성원들이 문제해결에 부적절하게 대처하였으며, 부모가 자신들의 문제와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강하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단절하거나 고립하고자 하는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사이에서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희(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분화와 높은 정적 상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고 하였다. 기독교 가정의 성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두경, 2012)에서도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기독교 청년의 자아분화수준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대 정서적,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과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곽선주(2011)의 연구에서, 개방적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어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형성, 학교적응, 대인관계와 정서 등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

자아분화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개념이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갈등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남순현 외, 2005, 재인용)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정서가 균형을 이루어 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대처하고(이현주, 1996; 최연우, 2010), 협력 및 절충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 모두가 만족하도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이은희, 2008; 조성현, 2012). 추효승(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내외통제소재를 매개로 하여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중 협력 및 절충, 지배, 양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미(2009)는 부부 대상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갈등해결전략을 통하여 결혼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반응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반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갈등 이후의 회복력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한미향, 1999; 이소미, 2009; 박은희, 2011). 반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면 부부갈등 상황에서 문제에 초점을 두어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폭력, 폭언과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선, 1996; 조은경, 2001; 정은희, 2004).

이 외에도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제석봉, 1989; 권미영, 1993; 백경하, 2003; 박영호, 2006; 이지민, 2001)도 많이 이뤄졌는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덜 경험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이것은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갈등을 유발할 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멀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곽선주(2011)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해 가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지 대 정서적 기능이 분화되지 못

한 사람은 본능적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적대감이 심하고 분노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며, 이것이 갈등 상황을 자주 발생시킬 뿐만이 아니라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란, 1994).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정서와 인지가 균형을 이루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갈등 발생 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2년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82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282명 중 남학생이 102명(36.2%), 여학생이 180명(63.8%)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중중'이라는 응답자가 146명(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하'가 60명(21.3%), '중상'이 56명(19.9%)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상'이 11명(3.9%), '하'는 9명(3.2%)이었다. 응답자의 아버지 학력을 살펴본 결과, 대학교 졸업이 136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109명(38.7%), 대학원 이상이 24명(8.5%), 중학교 졸업이 9명(3.2%), 초등학교 졸업이 4명(1.4%)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1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학교 졸업이 123명(43.6%), 대학원 이상이 12명(4.3%), 중학교 졸업은 10명(3.5%), 초등학교 졸업이 6명(2.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출생순위를 살펴본 결과, 맏이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2.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막내가 101명(35.8%)이었으며, 중간이거나 외동인 경우는 각각 30명(10.6%, 10.6%)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핵가족이라고 응답한 수가 250명(88.7%)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대가족이 19명(6.7%),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3명(1.1%),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10명(3.5%)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82)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	102	36.2
	여	180	63.8
경제수준	상	11	3.9
	중상	56	19.9
	중중	146	51.8
	중하	60	21.3
	하	9	3.2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4	1.4
	중학교	9	3.2
	고등학교	109	38.7
	대학교	136	48.2
	대학원 이상	24	8.5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6	2.1
	중학교	10	3.5
	고등학교	131	46.5
	대학교	123	43.6
	대학원 이상	12	4.3
출생순위	말이	121	42.9
	중간	30	10.6
	막내	101	35.8
	외동	30	10.6
가족형태	핵가족	250	88.7
	대가족	19	6.7
	한부모(부)	3	1.1
	한부모(모)	10	3.5
합계		282	100.0

2. 측정도구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모 자녀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Barns와 Olsen(1982)이 개발한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s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민혜영(1990년)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개방적 의사소통 10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를 각각 구분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며, 개방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 자녀 의사소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	문항수	신뢰도
개방적 의사소통	1, 3, 6, 7, 8, 9, 12, 13, 16, 17	10	부 .84
			모 .86
역기능적 의사소통	2, 4, 5, 10, 11, 12, 15, 18, 19, 20	10	부 .78
			모 .80

2) 갈등해결전략 척도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와 Goldbaum, Semeniuk(1995)가 제작한 McGill 친구관계 질문지-갈등해결 방식(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 Conflict Resolution Styles)을 이은혜, 고윤주, 오원정(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번안, 수정하고 여기에 하지원(2005)이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 ‘지배’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절충 및 협력’은 대인간 갈등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거나, 둘 다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이며, ‘회피’는 서로 간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다룰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는 방식이다. ‘양보’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상대방이 하고 싶은 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전략이며, ‘지배’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문항은 각 하위유형별 7문항씩 총 28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점)’까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표 3>과 같다.

<표 3> 갈등해결전략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절충 및 협력	1, 7, 8, 14, 16, 23, 27	7	.76
회피	2, 5, 6, 9, 15, 22, 26	7	.57
양보	4, 11, 12, 18, 20, 21, 25	7	.72
지배	3, 10, 13, 17, 19, 24, 28	7	.78

3) 자아분화 척도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채 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며,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인지 분화, 자아의 통합, 가족 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으로 총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평가되며,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 즉,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잘 분화되어 있으며, 자아의 통합수준이 높고,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	문항수	신뢰도
정서인지 분화	(1),(2),3,(4),(5),(6),(7)	7	.68
자아의 통합	8,9,10,(11),(12),13	6	.60
가족투사	(14),(15),(16),(17),(18),(19)	6	.87
정서적 단절	20,(21),(22),(23),(24),(25)	6	.76
가족 퇴행	26,27,28,29,30,31,32 (33),(34),(35),(36)	11	.88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를 구하고,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갈등해결전략, 자아분화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갈등해결전략, 자아분화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r = .46, p < .01$), 절충 및 협력($r = .17, p < .01$), 자아분화 전체($r = .42,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갈등해결 전략 중 지배($r = -.13, p < .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 양보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r = -.29,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갈등해결 전략 중 절충 및 협력($r = .26, p < .01$)과 회피($r = .19, p < .01$), 그리고 자아분화 전체($r = .53,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r = .55, p < .01$), 회피($r = .12, p < .05$), 지배($r = .22,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절충 및 협력($r = -.21, p < .01$)과 자아분화 전체($r = -.56,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r = -.32, p < .01$), 자아분화 전체($r = -.62,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지배($r = .20,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절충 및 협력은 회피($r = -.13, p < .05$)와는 부적 상관을, 자아분화 전체($r = .41, p < .01$)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회피는 양보($r = .27, p < .01$)와 정적 상관을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r = -.19,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분화의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양보는 지배($r = -.23, p < .01$), 자아통합($r = -.28, p < .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지배는 자아분화 전체($r = -.24, p < .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4가지 즉, 정서인지 분화($r = -.37, p < .01$), 가족투사($r = -.28, p < .01$), 정서적 단절($r = -.12, p < .05$), 가족 퇴행($r = -.14, p <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통합($r = .22,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인지 분화는 자아통합을 제외하고 가족투사($r = .55, p < .01$), 정서적 단절($r = .19, p < .01$), 가족 퇴행($r = .29, p < .01$), 자아분화 전체($r = .64, p < .01$)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아통합은 정서적 단절($r = -.13, p < .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분화 전체($r = .20, p < .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가족 투사는 정서적 단절($r = .29, p < .01$), 가족 퇴행($r = .36, p < .01$), 자아분화 전체($r = .73, p < .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단절은 가족 퇴행($r = .48, p < .01$), 자아분화 전체($r = .63,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 퇴행은 자아분화 전체($r = .80,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부의 학력은 경제수준($r = .26, p < .01$), 절충 및 협력($r = .12,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의 학력은 경제수준($r = .26,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n=2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부개방적	-													
2	모개방적	.46**	-												
3	부역기능적	-.46**	-.29**	-											
4	모역기능적	-.23**	-.54**	.55**	-										
5	절충및협력	.17**	.26**	-.21**	-.32**	-									
6	회피	.05	.19**	.12*	.08	-.13*	-								
7	양보	.02	.07	.03	.04	.06	.27**	-							
8	지배	-.13*	-.04	.22**	.20**	-.01	-.07	-.23**	-						
9	정서인지분화	.16**	.17**	-.33**	-.31**	.36**	-.11	.12	-.37**	-					
10	자아통합	-.04	.04	.06	.01	.11	-.19**	-.28**	.22**	.07	-				
11	가족투사	.21**	.24**	-.37**	-.45**	.32**	-.03	-.02	-.28**	.55**	.08	-			
12	정서적단절	.36**	.46**	-.43**	-.45**	.10	.00	.00	-.12*	.19**	-.13*	.29**	-		
13	가족 퇴행	.46**	.60**	-.53**	-.56**	.35**	.06	.08	-.14*	.29**	-.02	.36**	.48**	-	
14	자아분화(전체)	.42**	.53**	-.56**	-.62**	.41**	-.04	.00	-.24**	.64**	.20**	.73**	.63**	.80**	-
	M	3.22	3.62	2.55	2.51	3.76	3.20	3.20	2.90	2.86	2.58	3.15	2.85	3.09	2.93
	SD	.61	.67	.57	.60	.48	.44	.61	.55	.45	.40	.59	.55	.50	.32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가 사라진다거나 감소한다면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의 독립변인이 갖는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가 매개변인의 투입에 의해 유의미하지 않게 보이면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고,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가 매개변인에 의해 감소했다면 매개변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후에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Z = \frac{ab}{\sqrt{b^2Sa^2 + a^2Sb^2}}$ 의 공식에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비표준화 계수값 a와 표준오차 Sa,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에서의 비표준화 계수값 b와 표준오차 Sb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

위의 절차에 따라 검증한 결과,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과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쳤으며 해당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부모 자녀 의사소통→자아분화→절충 및 협력전략/지배전략	완전매개
	↓	
1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자아분화→절충 및 협력	완전매개
2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자아분화→절충 및 협력	완전매개
3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자아분화→지배	완전매개
4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자아분화→절충 및 협력	완전매개
5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자아분화→절충 및 협력	완전매개
6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자아분화→지배	완전매개
7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자아분화→지배	완전매개

<표 6>에서 자아분화가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전략, 지배전략을 완전 매개하는 결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에서 매개 효과가 있었는지 각각 경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총 7개의 경로에서 자아분화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각 경로에서 자아분화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매개로 절충 및 협력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매개로 지배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전략의 관계에서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절충 및 협력전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하여 지배전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소통과 양보전략, 회피전략에서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7가지 완전매개 경로들만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18,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173, p < .01$). 3단계에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01, p = .988$)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5.102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01$). 절충 및 협력전략에 대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3%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17%로 상승하였다.

<표 7>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272)

		B(SE)	β	R ²	F
1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221(.029)	.418***	.175	57.098***
2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139(.048)	.173**	.030	8.374**
3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001(.049)	-.001	.174	28.293***
	자아분화→ 절충 및 협력	.632(.092)	.417***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전략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는 부분매개효과($Z=2.284, p<.01$)를 가지며, ‘가족투사’($Z=3.10, p<.001$), ‘가족 퇴행’($Z=2.55, p<.01$)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2)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독립(A)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119(.044)	.162**	.026	7.292**	
		2	A→C	.139(.048)	.173**	.030	8.374**	
		3	A B1 →C'	.095(.046) .365(.062)	.119* .335***	.140	21.827***	
	절충 및 협력 :종속(C)	가족 투사 (B2)	1	A→B2	.198(.057)	.206**	.042	11.987**
			2	A→C	.139(.048)	.173**	.030	8.374**
			3	A B2 →C'	.089(.047) .250(.049)	.112 .300***	.116	17.716***
절충 및 협력 :종속(C)	가족 퇴행 (B3)	1	A→B3	.379(.044)	.461***	.213	73.018***	
		2	A→C	.139(.048)	.173**	.030	8.374**	
		3	A B3 →C'	.010(.051) .340(.063)	.012 .349***	.126	19.427***	

* $p<.05$, ** $p<.01$, *** $p<.001$

2)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beta = .527,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261, p < .001$). 3단계에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01, p = .354$)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3.750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01$). 절충 및 협력전략에 대한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6%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17%로 상승하였다.

<표 9>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279)

		B(SE)	β	R ²	F
1단계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253(.025)	.527***	.277	106.307***
2단계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188(.042)	.261***	.068	20.187***
3단계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001(.049)	-.001	.174	28.293***
	자아분화→ 절충 및 협력	.632(.092)	.417***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전략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Z=3.535, $p<.001$), ‘가족투사’(Z=3.283, $p<.001$)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며 ‘가족 퇴행’(Z=3.065, $p<.01$)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9)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독립(A) 절충 및 협력 :종속(C)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114(.040)	.170**	.029	8.208**
		2	A→C	.188(.042)	.261***	.068	20.187***
		3	A →C' B1	.149(.040) .346(.060)	.206*** .322***	.168	27.930***
	가족 투사 (B2)	1	A→B2	.209(.051)	.238***	.057	16.659***
		2	A→C	.188(.042)	.261***	.068	20.187***
		3	A →C' B2	.141(.042) .227(.047)	.195** .276***	.140	22.389***
	가족 퇴행 (B3)	1	A→B3	.446(.036)	.597***	.357	153.547***
		2	A→C	.188(.042)	.261***	.068	20.187***
		3	A →C' B3	.061(.051) .286(.068)	.084 .296***	.124	19.588***

* $p<.05$, ** $p<.01$, *** $p<.001$

3)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지배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418,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131, p < .05$). 3단계에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41, p = .529$)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3.037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5$). 지배전략에 대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1%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5%로 상승하였다.

<표 11>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272)

		B(SE)	β	R ²	F
1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221(.029)	.418***	.175	57.098***
2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지배	-.119(.055)	-.131*	.017	4.731*
3단계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지배	-.037(.059)	-.041	.056	7.926***
	자아분화→ 지배	-.371(.112)	-.216**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전략과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Z=-2.468, $p<.01$), ‘가족투사’(Z=-2.675, $p<.01$)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2)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독립(A)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119(.044)	.162**	.02	7.292**	
		2	A→C	-.119(.055)	-.131*	.17	4.731*	
		3	A -C' B1	-.068(.052) -.429(.071)	-.075 -.347***	.14	20.908***	
	지배 :종속(C)	가족 투사 (B2)	1	A→B2	.198(.057)	.206**	.04	11.987**
			2	A→C	-.119(.055)	-.131*	.17	4.731*
			3	A -C' B2	-.073(.054) -.235(.056)	-.080 -.249***	.08	11.134***

* $p<.05$, ** $p<.01$, *** $p<.001$

4)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559,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 = -.205, p < .01$). 3단계에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42, p = .535$)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3.030 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1$). 절충 및 협력전략에 대한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4%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17%로 상승하였다.

<표 13>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n=272)

		B(SE)	β	R ²	F
1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314(.028)	-.559***	.313	122.832***
2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174(.051)	-.205**	.042	11.795**
3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035(.057)	.042	.175	28.526***
	자아분화→ 절충 및 협력	.666(.101)	.44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전략과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Z=-2.903, $p<.01$), ‘가족투사’(Z=-2.770, $p<.01$), ‘가족 퇴행’(Z=-2.857, $p<.01$)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2)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 인	단 계	경로	B(SE)	β	R ²	F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독립(A)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421(.074)	-.328***	.10	32.634***	
		2	A→C	-.241(.070)	-.205**	.042	11.795**	
		3	A -C' B1	-.084(.051) .351(.065)	-.099 .322***	.135	20.906***	
	절충 및 협력 :종속(C)	가족 투사 (B2)	1	A→B2	-.358(.055)	-.366***	.134	41.678***
			2	A→C	-.241(.070)	-.205**	.042	11.795**
			3	A -C' B2	-.085(.052) .238(.051)	-.100 .287***	.113	17.150***
가족 퇴행 (B3)	가족 퇴행 (B3)	1	A→B3	-.602(.059)	-.525***	.276	102.983***	
		2	A→C	-.241(.070)	-.205**	.042	11.795**	
		3	A -C' B3	-.021(.057) .333(.065)	-.025 .342***	.127	19.485***	

* $p<.05$, ** $p<.01$, *** $p<.001$

5)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615,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절충 및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317, p < .001$). 3단계에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02, p = .142$)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3.725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01$). 절충 및 협력전략에 대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10%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17%로 상승하였다.

<표 15>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n=279)

		B(SE)	β	R ²	F
1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329(.025)	-.615***	.379	168.74***
2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254(.046)	-.317***	.101	31.015***
3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절충 및 협력	-.082(.058)	-.102	.177	29.648***
	자아분화→ 절충 및 협력	.525(.104)	.35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전략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Z=-3.702, $p<.001$), ‘가족투사’(Z=-2.999, $p<.01$), ‘가족 퇴행’(Z=-3.051, $p<.01$)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9)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독립(A) 절충 및 협력 :종속(C)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230(.043)	-.309***	.095	29.193***
		2	A→C	-.396(.071)	-.317***	.101	31.015***
		3	A -C' B1	-.184(.046) .307(.062)	-.229*** .286***	.175	29.183***
	가족 투사 (B2)	1	A→B2	-.441(.052)	-.453***	.205	71.623***
		2	A→C	-.396(.071)	-.317***	.101	31.015***
		3	A -C' B2	-.173(.050) .185(.052)	-.216** .224***	.141	22.592***
	가족 퇴행 (B3)	1	A→B3	-.464(.041)	-.560***	.313	126.255***
		2	A→C	-.396(.071)	-.317***	.101	31.015***
		3	A -C' B3	-.144(.054) .237(.065)	-.180** .245***	.142	22.847***

* $p<.05$, ** $p<.01$, *** $p<.001$

6)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559,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 = .217, p < .001$). 3단계에서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127, p = .075$)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233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5$). 지배전략에 대한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4%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7%로 상승하였다.

<표 17>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n=272)

		B(SE)	β	R^2	F
1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314(.028)	-.559***	.31	122.832***
2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지배	.210(.057)	.217***	.04	13.402***
3단계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지배	.122(.069)	.127	.07	9.400***
	자아분화→ 지배	-.278(.122)	-.16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전략과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는 완전매개효과($Z=-3.039, p<.01$), ‘가족투사’는 부분매개효과($Z=-2.507, p<.01$)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표 18>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2)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독립(A) 지배 :종속(C)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421(.074)	-.328***	.10	32.634***
		2	A→C	.210(.057)	.217***	.05	13.402***
		3	A →C' B1	.108(.058) -.398(.074)	.112 -.323***	.14	21.925***
	가족 투사 (B2)	1	A→B2	-.374(.058)	-.366***	.13	41.678***
		2	A→C	.210(.057)	.217***	.05	13.402***
		3	A →C' B2	.134(.060) -.202(.059)	.139* -.214**	.09	12.830***

* $p<.05$, ** $p<.01$, *** $p<.001$

7)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1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 = -.615, p < .001$),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 = .197, p < .01$). 3단계에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분화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지배전략에 미치는 영향력($\beta = .080, p = .279$)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Sobel test 결과 Z값이 -2.031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p < .05$). 지배전략에 대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3%에서 자아분화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6%로 상승하였다.

<표 19>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n=279)

		B(SE)	β	R^2	F
1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자아분화	-.329(.025)	-.615***	.379	168.747***
2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지배	.179(.054)	.197**	.039	11.198**
3단계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지배	.073(.067)	.080	.061	9.010***
	자아분화→ 지배	-.324(.126)	-.19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전략과의 관계에 있어 자아분화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의 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 퇴행’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정서인지분화’(Z=-2.863, $p<.01$), ‘가족투사’(Z=-2.398, $p<.05$)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배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n=279)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단계	경로	B(SE)	β	R ²	F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독립(A)	정서인지 분화 (B1)	1	A→B1	-.230(.043)	-.309***	.095	29.193***
		2	A→C	.179(.054)	.197**	.039	11.198**
		3	A →C' B1	.085(.053) -.409(.072)	.094 -.335***	.140	22.516***
지배 :종속(C)	가족 투사 (B2)	1	A→B2	-.441(.052)	-.453***	.205	71.623***
		2	A→C	.179(.054)	.197**	.039	11.198**
		3	A →C' B2	.086(.059) -.212(.061)	.094 -.227**	.080	11.945***

* $p<.05$, ** $p<.01$, *** $p<.001$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 자녀 의사소통, 자아분화,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분화가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와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효율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Hoffman & Weiss, 1987; Kerr & Bowen, 1988/2005; 김정은, 2006; 김지원, 2011;곽선주, 2011; 유선희, 2013)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절충 및 협력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지배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들이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양쪽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민유정, 2008; 조경은: 2008; 류승민; 2010), 부모가 자녀의 정서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압적이거나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들이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습득하지 못하여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경향(김지

은, 2013)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피전략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각각 다르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경우 일방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없이 말하게 될 경우 쉽게 갈등과 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갈등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대인 간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회피 하는 식의 해결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피전략이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이 될 수도 있다(배선영, 2000).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인 어머니가 자녀와 개방적이고 호응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가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관계를 고려한 회피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분화가 절충 및 협력전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배전략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정서가 균형을 이루어 객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가 만족하도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고 한 선행연구(Bowen, 1976; 전연진, 2002 이은재,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의 이성교제 시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은 관심과 이해, 긍정적 감정표현과 초점유지 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고(안혜림 외, 2011),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역기능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배옥현, 홍상욱, 2008)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자아분화와 지배전략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은희(2008), 조성현(2012)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효승(2013)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들 간에 일관성 없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이은희, 2008; 조성현, 2012; 추효승, 2013)들의 대상이 청소년인데 비해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달단계 상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을 내세우던 청소년기와는 달리 타인의 의견과 입장을 배려하는 등 좀 더 성숙하게 대인관계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아분화와 지배전략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자아통합이 지배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통합의 의미가 쉽게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압력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스스로 잘 견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의견충돌 시 회피하거나 양보하는 방식이 아닌 옳다고 여겨지는 의견이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배전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배전략이 갈등해결전략 중 부정적인 방식에 속함을 고려할 때, 자아통합수준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정연(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이 높을수록 독립-책임적, 경쟁-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아통합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선미(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고수하는 방식에 따

라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연구(윤정연, 2001; 윤선미, 2010) 모두 청소년과 대학생 등 학교에서의 또래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할 때, 또래가 아닌 직장 상사나 연장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아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윤정연, 2001), 이에 대해서는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 절충 및 협력전략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으며, 또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자녀가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장영수(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생 순위나 가족형태는 자녀의 자아분화 또는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자아분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갈등해결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Bowen, 1978; 고민좌, 2000; 조성두, 2008; 추효승, 2012; 구순숙, 201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지분화, 가족투사, 가족퇴행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부모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인지분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격적 결함이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도록 하며, 가정에 부정적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의 자아분화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때 감정에 쉽게 휘둘리거나 주변의 압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습득한대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의 역할이다. 정서인지분화, 가족투사가 부모 자녀 개방적 의사소통과 절충 및 협력 전략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가족퇴행은 두 변인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퇴행이 절충 및 협력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퇴행의 개념이 가족 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 퇴행이 낮은 가족일수록 가족구성원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절충 및 협력전략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퇴행이 절충 및 협력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완전 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지배전략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모 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한다거나 대화자체가 단절되어 가족 간의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 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가족 안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하여 배워갈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자녀의 자아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자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미분화된 부모의 자아분화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투사와 가족퇴행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Bowen, 1982, 고민좌, 2000; 전연진, 2002).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자녀들은 대인관계 갈등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 채,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로 인하여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결국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부모 자녀 의사소통은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절충 및 협력전략, 지배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피전략, 양보전략에서는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회피전략과 양보전략이 관계 지향적이라는 점을 들어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회피전략은 관계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때로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갈등해결전략이 될 수 있다. 양보전략의 경우에도 타인의 욕구에만 지나치게 맞추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은 타인에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한 가지 갈등해결전략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절충 및 협력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관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지배전략은 지양하며, 문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회피전략과 양보전략을 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갈등해결전략 중 절충 및 협력전략과 지배전략에서 자아분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영향을 주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갈등상황에서 감정적이거나 이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결전략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과정에서 대학생 내담자들이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내담자들의 자아분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주어진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아분화는 자기개념과 관련(Fine & Hovestandt, 1984; Fleming & Anderson, 1986; 김정진, 2013)이 깊으므로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수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 갈등상황에 대하여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을 하도록 훈련(김은주, 2012; 김희정, 2012)함으로써 정서와 인지의 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라는 환경적 변인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학생 자녀의 자아분화를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유선희(2013)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며,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다세대 전수과정(Bowen, 1982)에 의하여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정경연, 심혜숙(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기존 연구와 달리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의사소통이 아동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자아분화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 대학생의 이성 교제 시 발생하는 갈등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대학생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대상과 갈등상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함으로써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에 관해 일반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갖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한 후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피전략과 양보전략에 대한 부모 자녀 의사소통과 자아분화의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회피 전략과 양보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피전략의 경우 선행연구들(안혜림 외, 2011; 김혜림 2015)에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아분화와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대학생들이 또래 관계에서나 이성교제 상황에서나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동일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비교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성교제 상황과 또래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자아통합은 타인에게 영향 받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주장이나 의견을 고수해 나간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를 포함한 자아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또래관계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자아통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 갈등과 대처방법을 연구해 봄으로써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란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성, 또래관계 및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소영 (2009). **정서표현갈등, 갈등해결전략이 대인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2009). **남녀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 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 14(4), 79-94.
- 김경희 (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 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3). **대학생 이성 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석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10).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의 관계**.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숙 (2012). **중년기 기혼 남,녀의 자기분화, 자아존중감, 갈등해결전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1). **중학생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갈등 및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나, 김정택 (2008).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사랑 성향과 이성교제시 갈등 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29, 19-32.
- 김여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 (2013).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2011).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와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07).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신념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7).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화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 **상담심리연구**, 7(1), 96-124.
- 김희숙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성 (2012). **자아분화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수 (200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림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선주 (201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고교생의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자아분화의 매개 역할.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만족도 : 자율성 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영 (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연희 (200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옥경 (2003).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과 자녀의 대인관계 기술. 숙

- 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경숙 (2004).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대인지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봉렬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민 (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공감능력 및 친구간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유정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지애 (2012).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선 (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아분화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화 (2006). **한 부모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경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정서교양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경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및 정서조절 능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2011).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민 (2000). **대학생활적응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 (2011). **부부의 자아분화가 갈등대처방식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2010). **초등학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대인관계와 학교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2011). **성인에 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문희 (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 (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하 (2003). **원가족에서의 자아분화가 지도력 및 대인관계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윤미 (2005). **부와 모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사공미숙 (2006). **대학생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윤성 (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자은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계**. 호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신영규 (2004).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분화와의 관계**, 한국가족치료, 2(1), 89-103.

- 서연석 (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원 (2015). **대학생의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전략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여옥 (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주연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혜 (2010).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혜림, 장예진, 김희주, 최연수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이성교제 시 갈등해결전략**. *부모교육연구*, 8(1), 87-114.
- 이금, 박옥임, 이경주 (199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25.
- 이경은, 박 경 (2006). **대학생의 성행동-태도 일치도 및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심리치료*, 6(2), 41-60.
- 이두경 (2011). **기독교청년의 자아분화수준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 (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임 (2007).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지 (200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정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미 (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갈등대처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7(2), 133-159.
- 이은재 (2008).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와 지각된 부부갈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윤희 (2000).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9(4), 429-445.
- 이지민 (2010). 가족상담 :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한국상담학회**, 11(3), 1271-1287
- 이현경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애착과 사회관계성향과의 관계: 정서지능을 매개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6). **부부의 자아 분화 정도와 갈등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강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의 관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 (192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주희, 최연실 (200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 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아동학회지**, 27(4), 233-246.
- 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252-262.
- 유선희 (2013).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아분화 수준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경 (2004). **부모 양육 태도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과 남자 중학생 자아분화 수준과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모 (2011).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과 의사소통유형이 친구와의 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미 (2010). **자아분화수준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현심 (2014).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 조절효과**. 한국상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림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과 정서지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수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이성 관계 불만족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보영 (2005). **대학생의 애착수준, 분리개별화 및 이성간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연, 심혜숙(2007). 부모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분화와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225-245.
- 정남선 (2007).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 (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 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은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규칙 및 아동의 내외통제성이 아동의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현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 (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하나 (2006).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우울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4). **부자유친성정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관련 정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최연우 (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효승 (2013). **중학생의 자아분화와 내외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원 (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정서조절능력이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향 (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선이 (2005).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ason Aronson.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 Barnes, H,&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Deutsch, M. (1973). *The solution of conflict*, New Haven: Yale Univ. Press.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ne, M., & Hovestadt, A.(1984). Perception of marriage and rationality by levels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0*, 193-195.
- Fleming, W. M., & Anderson, S. A.(1986), Individu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and person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Marital Family Therapy, 13*(3), 311-315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ordon, T. (1976).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Greene, G.J.,Hamilton,N. and Rolling, M(1986).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iatric diagnosis: An empirical study. *Family Process, 8*.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 195-217.
- Hoffman, J. A. and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 157-163.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24-28.
- Kerr, M. E.,& Bowen, M.(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 [*Family Evaluation*].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8에 출판).
- Laursen, B., Collins, W. A.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
-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the primary school*. Eastbourne : Hole, Rinehart & Winston.
- Rahim, M. A.(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Satir, Virginia.(1972). *People Making*. Palo Al to, California : Science of Behavior Books, Inc.
- Satir, Virginia.(1971). *The Family as a Treatment Unit*, Jay Haley ed., *Changing Families*. *New York: Grune and Stratton*.
- Selam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hantz, C, U., Hpbart, C. J.(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 Peer and siblings*. In T. Berndt & G. W. Ladd(Eh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71-94, New York; Wiley.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k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ogy* (pp. 290-312). Washington, DC:55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Adolescents Communication on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Lee, Yun-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is study included a sample of 282 college students. Each students received a package of the instruments: Parents 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 Conflict Resolution Styles Questionnaire, Self-Differentiation Questionnaire.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Differentiation,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paternal open communication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promise and cooperation strategies,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governance strategy an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Maternal open

communication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promise and cooperation strategies, avoidance strategy and self-differentiation. Paternal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promise and cooperation strategies,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governance strategy and avoidance strategy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Maternal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compromise and cooperation strategies,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avoidance strategy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Avoidance strategy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concession strategy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integration. Concession strategy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governance strategy and self-integration. Governance strategy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differentiation. (2)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and cooperation strategies was fully confirmed.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lf-Differentiation between maternal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strategy was fully confirm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strategies and between Maternal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strategy have verifi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elf-differentiation.

부 록

부록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부록 2. 갈등해결전략 척도

부록 3. 자아분화 척도

부록 1.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 다음 문항들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부분에 O표시 하십시오(아버지가 없는 경우 체크하지 마시오)

문항 내용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3. 아버지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1	2	3	4	5
5.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잔소리)를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아버지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1	2	3	4	5
7. 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아버지께 말씀 드릴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아버지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10.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아버지께 침묵을 지킨다.	1	2	3	4	5
11. 아버지께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	2	3	4	5
12. 아버지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14. 아버지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15.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1	2	3	4	5
16.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7. 아버지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다.	1	2	3	4	5
18. 아버지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5
19. 아버지가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욕하거나 경멸하는 태도)한다.	1	2	3	4	5
20. 어떤 것에 관해 내가 실제로 느낀 바를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 다음 문항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부분에 O표시 하십시오. **(어머니가 없는 경우 체크하지 마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 다	아 니 다	보 통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주저함이 없이 어머니께 내 주장을 이야기한다.	1	2	3	4	5
2.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3. 어머니는 항상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	1	2	3	4	5
4. 나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머니께 요구하기가 두렵다.	1	2	3	4	5
5.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것(잔소리)를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6. 어머니는 나에게 묻지 않고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1	2	3	4	5
7. 나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1	2	3	4	5
8.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어머니께 말씀 드릴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머니께 숨김없이 애정을 표시한다.	1	2	3	4	5
10.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종종 어머니께 침묵을 지킨다.	1	2	3	4	5
11. 어머니께 이야기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1	2	3	4	5
12. 어머니와 대화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는 정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14. 어머니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15.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 거리가 있다.	1	2	3	4	5
16. 어머니와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7. 어머니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다.	1	2	3	4	5
18. 어머니는 나에게 성가시도록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5
19. 어머니가 나에게 화가 나셨을 때, 나를 모욕(욕하거나 경멸하는 태도)한다.	1	2	3	4	5
20. 어떤 것에 관해 내가 실제로 느낀 바를 어머니께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부록 2. 갈등해결전략 척도

■ 다음은 귀하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해당하는 부분에 O표시 하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OO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조금씩 양보하려고 한다.	1	2	3	4	5
2. 나는 OO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1	2	3	4	5
3. 나는 할 수만 있다면 OO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	1	2	3	4	5
4.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OO에게 맞춘다.	1	2	3	4	5
5. 나는 OO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노력한다.	1	2	3	4	5
6. 나는 OO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못 들은 척 한다.	1	2	3	4	5
7. 나는 OO와 생각이 다를 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8. 나는 OO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둘 다 괜찮은 방법을 찾으려 한다.	1	2	3	4	5
9. 나는 서로 다룰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OO에게 언급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나는 OO에게 내 생각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11. 만약 OO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보한다.	1	2	3	4	5
12. 나는 서로의 기분이 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 생각을 OO에게 맞춘다.	1	2	3	4	5
13. 나는 OO에게 내 의견의 좋은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나와 OO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15. 나는 OO와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OO와 같이 의논한다.	1	2	3	4	5
17. 나는 OO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	1	2	3	4	5
18. OO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나는 OO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한다.	1	2	3	4	5
19. 나는 OO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1	2	3	4	5
20. 나는 OO가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대부분 좋다고 한다.	1	2	3	4	5
21. OO와 의견이 다를 때 나는 OO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22. 나는 OO와 내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룬다.	1	2	3	4	5
23. 우리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모두 말한다.	1	2	3	4	5
24. 나는 OO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5
25. 처음에는 OO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OO가 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조절한다.	1	2	3	4	5
26.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OO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27. OO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서로의 관심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5
28. OO의 생각이 나와 다를 때 나는 주로 나의 입장(생각)을 이해시키려 한다.	1	2	3	4	5

부록 3. 자아분화 척도

■ 다음은 최근 2년간의 여러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O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 다	대체 로 아니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1	2	3	4
2. 나는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1	2	3	4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1	2	3	4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때가 있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1	2	3	4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나 스스로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바꾸는 편이다	1	2	3	4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요시한다.	1	2	3	4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바로 바꾼다.	1	2	3	4
12. 내 계획이 주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1	2	3	4
13. 주위의 말을 참작은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1	2	3	4

■ 다음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동, 경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 번호에 O표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 혀 아 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1	2	3	4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1	2	3	4
16.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	1	2	3	4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1	2	3	4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그대로이다.	1	2	3	4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이다.	1	2	3	4
20.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할 거라 생각한다.	1	2	3	4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	2	3	4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	1	2	3	4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 보다는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 왔다.	1	2	3	4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1	2	3	4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자기 본분을 다했다.	1	2	3	4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는다.	1	2	3	4
28. 가족 간에 말썽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 가면서 잘 해결해 왔다.	1	2	3	4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고 싸우는 일이 드물다.	1	2	3	4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신다.	1	2	3	4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한 편이다.	1	2	3	4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편이다.	1	2	3	4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운다.	1	2	3	4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36.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 다음 사항 중 해당하는 번호에 O를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남 ②여

2. 귀하의 가족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상 ②중.상 ③중.중 ④중.하 ⑤하

3. 귀하의 부모님의 학력은?

-어머니: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교 ⑤대학원 졸업 이상

-아버지: ①초등학교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대학교 ⑤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출생순위는 ?

- ①말이 ②중간 ③막내 ④외동

5. 귀하의 가족형태는?

- ①핵가족 ②대가족 ③한부모가족(부 or 모) ④다문화가정 ⑤기타()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